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의 창작 시기와 세계상*

김명준**

<차례>

- I. 서론
- II. 좌절과 모색
 - 1. 생애와 창작 시기
 - 2. 작품 세계
- III. 결론

I. 서론

본고는 맹사성(孟思誠, 1360 ~ 1438)의 생애와 교유 및 영향 관계를 살펴 <강호사시가>의 창작 시기와 세계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¹⁾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윤제는 이 작품을 맹사성이 만년(晩年) 치사(致仕) 이후 한가한 삶을 노래한 것으로서 후대 강호가도(江湖歌道)의

* 이 논문은 2002년도 BK21 고려대학교 한국학 교육연구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1) <강호사시가>의 작가를 맹사성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가집의 기록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강호사시가>를 맹사성의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전구(前驅)적 위치에 두었다.²⁾ 이후 김홍규는 강호가도라고 범칭되어 온 작품들을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의 상관성 속에서 <강호사시가>를 “조선 초기 집권사대부층의 일원으로서 맹사성이 가졌던 도덕적 정치적 낙관주의의 소산”으로 파악하였다.³⁾ 이처럼 이들은 <강호사시가>를 전직 고급 관료가 만년에 느낀 조화로운 세계 인식의 산물로 보았다.

또한 이형대는 <강호사시가>를 “시조 형식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아직 그 기능상 악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⁴⁾ 그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강호사시가>를 악장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단서를 김홍규의 논의에서 찾았지만 <강호사시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김홍규와 거리를 두고 있다. 김홍규가 이 작품을 서정시의 자기장권내에 놓고 있는 데 비해 이형대는 순수 서정이 아닌 관료 사대부의 집단 의식이 표출된⁵⁾ (준)공식적 양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작품에 투영된 작가적 체험의 유무와도 연결된다. 김홍규에 의하면 이 작품은 “노령에 이르러 은퇴한 그(맹사성)는 세상이 풍성하고 조화로운 곳이며 강호에서 맛보는 넉넉한 기쁨”도 조화의 소산이라 하여 실제 체험의 표현으로 보았다.⁶⁾ 이에 비해 이형대는 “현실적 기반과 당초에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적 이상주의 국가를 향한 모색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당위적 세계의 모습이지만 ... 충분히 다다를 수 있고, 거기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대로서의 세계 표상”으로 파악하였다.⁷⁾ 다시 말해 이형대는 <강호사시

2) 趙潤濟, 『朝鮮詩歌史綱』(東光堂書店, 1937), 215~217쪽

3) 金興圭, 『江湖自然과 정치현실』, 『육망과 형식의詩學』(태학사, 1999), 146쪽.

4)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소명출판, 2002), 93쪽.

5) 이형대, 같은 글, 96쪽.

6) 김홍규, 같은 글, 146~147쪽.

7) 이형대, 같은 글, 98쪽.

가>의 세계상은 실제 체험의 세계가 아니라 이념과 정치적 측면에서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추체험(追體驗)의 세계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강호사시가>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 조운제가 ‘만년 치사 이후 지은 것’이라 언급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작품 세계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논자들 역시 모두 만년 작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⁸⁾ 하지만 이 작품의 창작 시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맹사성의 삶의 궤적과 작품의 이해에 따라 작품의 생산 시기를 일정 정도 소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강호사시가>를 이룬 시기에 수록한 『진본 청구영언(珍本 靑丘永言)』과 『육당본 해동가요(六堂本 海東歌謠)』에는 이 작품을 본조(本朝-朝鮮)가 아닌 여말(麗末)에 실고 있다. 여말조에는 이색(李穡, 1328~1396)·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작품과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놓여있다. 김천택(金天澤)과 김수장(金壽長, 1690~?) 이 작가의 생몰연대를 기준으로 작품을 배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방원(李芳遠, 1367~1422)은 위 인물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그의 작품은 본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만이 적용된 것은 아닐 듯 싶다. 정재호는 여말에 시조를 창작한 인물들이 여럿 있음에도 이 세 인물만을 수록한 것은 전환기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세 인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⁹⁾ 이는 가집 편찬자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작가별 의식 차이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어, 작품 배열의 기준이 작가의 생몰연대 외에 편찬자의 비평적 의식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9세기에 편찬된 『육당본 청구영언』에는 가집 편찬자가 <강

8) <강호사시가>를 현실주의자의 자기합리화로 파악했던 이종주도 만년 작으로 보고 있다. 李鍾周, 「孟思誠論」, 『續 古時調作家論』, 韓國時調學會 編 白山出版社 1990), 20 쪽.

9)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태학사, 1999), 379~380 쪽

호사시가>를 여말이 아닌 본조로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품의 수록 기준이 생물연대만이 아니라 편찬자가 지니고 있는 작가에 대한 심리적 초상도 작품 배열에 일정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천택이 맹사성의 작품을 여말에 놓은 것은 역사적 격변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작품 양상의 하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 시점 또한 전환기 즈음으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고려 우왕 때부터 세종 때까지 관료 생활을 했던 맹사성이지만 몇 번의 해임과 유배가 있었고 실제 강호 체험 시기가 왕조교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강호사시가>의 창작 시점은 작품의 세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강호사시가>가 맹사성의 노년 작으로 전제될 때의 작품 세계와, 창작 시기를 좀더 소급할 때의 세계는 그 시기만큼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치사 이후의 강호 인식과 관료 생활이 잠시 단절된 기간 동안 맛본 강호 체험의 의식 사이에도 세계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강호사시가>의 세계상도 - 현실 체험의 표상(表象)인가 아니면 추체험된 관념상(觀念象)인가 - 아울러 살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이를 위해 맹사성의 삶 가운데 여말선초 정권교체기의 생애를, 정치적 사건과 영향 관계선상의 인물들 사이에서 조명하면서 그 때의 강호 체험이 <강호사시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또한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맹사성의 한시 작품도 다룰 것이다. 논의 결과가 일정한 수준에서 용인될 수 있다면 강호시가사에서 <강호사시가>의 위치를 달리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된다.

II. 좌절과 모색

1. 생애와 창작 시기

맹사성의 문집이 전하지 않고 그에 관한 편린의 기록들만이 여러 문헌에 실려 있어 구체적인 삶의 행보를 살펴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추적한 성과들은¹⁰⁾ 맹사성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필자는 선업(先業)에 힘입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의 맹사성 관련 기록과¹¹⁾ 기타 문헌 등을 바탕으로 맹사성의 삶을 서술하고자 한다.

맹사성의 삶이 고려와 조선에 걸친 만큼 그의 생애 또한 여말의 (성장)수학기·1차 관료기와 선초의 2차 관료기·치사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려와 조선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정보는 후반부에 집중되었고 연구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맹사성에 대한 기록이 『세종실록』에 비교적 풍부하게 기록되었고, <강호사시가>의 창작 시기를 노년으로 보았던 것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창작 시기를 소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그 근접점까지의 삶을 조망하는 것이 본고의 방향과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맹사성이 안정적 관료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삶을 주로 살펴기로 한다.

맹사성은 고려 공민왕조에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낸 조부 맹유(孟裕)와 우왕조에 수문전(修文殿) 제학(提學)을 역임한 부친 맹희도(孟希道)의 장남으로, 1360년(공민왕 9) 7월 17일 개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러한 배경 덕택에 유년기를 순탄하게 보냈던 것으로 짐

10) 김흥규, 같은 글 ; 이종주, 같은 글 ; 맹온재, 「古佛 孟思誠 研究」, 『國樂院論文集』 第 11輯(國立國樂院, 1999).

11)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려사』에는 맹사성과 관련된 기사가 총 7건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490건이 검색되었다. 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국역 조선왕조실록』(CD-ROM, 서울(주)서울시스템 1997) ; 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국역·원전 고려사』(CD-ROM, 서울(주)서울시스템 1998).

작되며, 당시 권력자였던 최영(崔瑩, 1316 ~ 1388)의 손녀와 정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 또한 이 시기에 맹사성은 부친 맹희도와 가까웠던 권근(權近, 1352 ~ 1409)에게 수학하게 된다.¹³⁾ 이후 그는 17살(1376년, 우왕 2)이 되던 해에 생원·진사 초·복시에 합격(장원)하게 되었고, 26살(1385년 9월, 우왕 11) 때에는 성균관 생원 신분으로 문묘제에서 시를 강하는¹⁴⁾ 기회까지 얻을 정도로 배경과 학업 면에서 돋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해인 1386년(우왕 12) 5월에 그는 문과 초·복시 장원을 차지하게 되었는데¹⁵⁾ 이 때 지공거(知貢舉)는 이색(李穡, 1328 ~ 1396)이었다.¹⁶⁾ 이색은 1368년(공민왕 17) 권근이 성균시에 합격하고 춘추관 검열이 될 때에도 좌주(座主)였던 까닭에 맹사성의 합격 뒤에는 권근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맹사성의 가문과 학맥을 통해 볼 때, 그는 고려 사회의 예비 주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최영의 손서(孫

12) 『신창맹씨세적(新昌孟氏世蹟)』에 따르면 맹사성이 5살 때 친구들과 최영의 배 밭에서 서리하다가 들켰는데 친구들과 달리 맹사성이 정중히 사죄하는 것을 본 최영은 이를 가상히 여겼고, 그의 조부가 이부상서 맹유임을 알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맹사성은 최영의 손녀 사위가 되었다고 한다. 맹은재, 같은 글, 86쪽.

13) “先生有子 伯曰思誠 仲曰思謙 皆從子學.” <贈孟先生詩卷序 > 『陽村集』卷 17.
“선생(맹희도)의 아들이 맏이는 사성, 가운데는 사겸인데 모두 나에게서 글을 배웠다.”

14) “長溥等 謁文廟 召生員孟思誠講詩.” 『高麗史』卷135 列傳48 禡王 十一年 九月.
“장부 등이 문묘를 배알하고 생원 맹사성을 불러 시를 강하게 하였다”

15) “丁巳 禡 如毬庭 親自調馬 取及第孟思誠等.” 『高麗史』卷136 列傳49 禡王 十二年 五月.
“정사에 우(禡)가 구정(毬庭)에 행차하여 친히 말(馬)을 징발(徵發)하였다 맹사성 등을 급제(及第)시켰다”

16) “十二年五月 韓山府院君李穡 知貢舉 三司左使廉興邦 同知貢舉 取進士 賜孟思誠等三十三人及第.” 『高麗史』卷73 志27 選舉.
“與長湍縣令文君 再游石壁 文君邀至上流合并處 捕魚設食 晚歸 有孟昉 柳衍 門生孟思誠 李稚 來報臺省又論前事 赴處咸昌.” 『牧隱詩稿』卷35 <長湍吟>.

堦)와 이색·권근의 문하생으로서의 입지는 선대보다 나은 영달은 물론 당대 사회의 주도층이 될 수 있는 보증수표였던 셈이다.

맹사성의 1차 관료 생활은 1386년(우왕 12)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장원 및 후광으로 급제이후부터 초급관료로서의 요직인 춘추관 검열, 전의승(典儀承)을 거쳐 1391년(공양왕 3) 유배를 당하기 전까지 기거사인(起居舍人)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의 관료 생활은 기대했던 것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1389년(창왕 1)에 이승인(李崇仁, 1349~1392)은 기복출사(起復出仕)와 중국 사신으로서 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간(臺諫)으로부터 탄핵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근은 그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지만 도평의사사에서는 이 둘 모두 유배하라고 건의한다. 이 때 맹사성은 도당(都堂)의 처결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우봉(牛峯)에 유배되고 만다.¹⁷⁾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이승인의 기복출사에 대한 권근의 단순한 구명운동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배후를 보면 정치적 쟁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권근은 1389년 부사(副使)로 명에 다녀왔는데 이 때 혁명파(이성계 그룹)의 사전 음모로 인해 명나라의 자문(咨文)이 우창왕 및 고려 왕실에 불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던 까닭에 권근은 자문을 도당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 고황제의 신임을 얻었던 이승인의 출사는 혁명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에 기복출사를 빌미삼아 그의 정계 진출을 제지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대사헌이었던 조준(趙浚, 1346~1405)은 상중(喪中)이었지만 그가 혁명파였던 까닭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보더라도 혁명파가 이승인을 견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창왕 연간 혁명파와 비혁명파 사이의 정치적 대결은 무르익었고, 후자 쪽에 권근·이승인·맹사성 등이 함께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91년(공양왕 3) 3월 당시 간관(諫官)이던 맹사성은 유배를 가게

17) 『高麗史』 卷115 列傳28 諸臣 李崇仁.

된다. 1390년(공양왕 2) 윤이(尹彝)·이초(李初) 등이 명에 입국하여 이성계(李成桂)를 참소(讒訴)하였는데 후에 이 일이 발각되자 이성계 일파는 반격을 시작하였다. 당시 김종연(金宗衍, ?~1390)이 이 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지용기(池湧奇, ?~1392), 조유(趙裕), 권격(權格) 등과 더불어 이성계를 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경천호(西京千戶)였던 윤구택(尹龜澤)의 밀고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혁명파는 이들의 징벌을 명하였다. 그런데 낭사(郎舍)에서는 사령장에 서명을 하지 않자 식목록사(拭目錄事)등이 ‘낭사가 김종연을 도와서 음모를 비호한다’고 하여 낭사의 몇몇 관원들을 탄핵하고 그 과정에서 맹사성을 비롯한 낭사에 속한 아홉 명이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¹⁸⁾ 얼마 안 있어 맹사성은 해배되었으나, 복직은 하지 못하고 경외종편(京外從便)만을 허락 받았다.¹⁹⁾

이 사건 역시 앞서의 일과 마찬가지로 혁명 전야에 혁명파와 비동조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의 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을 보면 맹사성이 주동하여 서명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2년전 권근을 변호할 때처럼 비동조세력권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맹사성이 복직을 기다리던 중 1392년 7월 혁명파에 의해 조선이 건국된다. 이 당시 혁명 정부에서 밀려났거나 참여를 거부한 인물들은 동·서 두문동으로 피난을 떠난다. 얼마 안 있어 조부 맹유는 서두문동에서 죽게 되며, 부친 맹희도는 동두문동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충남 아산 최영의 고택에서 은거하다가 그곳에서 종로(終老)하였다.²⁰⁾ 이 시기 맹사성도 부친을 따라 이곳에서 재출사할 때까지

18) 『高麗史』卷104 列傳17 諸臣 金宗衍.

19) “己丑 宥陳義貴 鄭習義 李滉 權湛 禹洪富 孟思誠 宋愚 尹珪 尹須 京外從便” 『高麗史』卷46 世家46 恭讓王 辛未 三年 十一月.

“기축에 진의귀, 정습의, 이황, 권담, 우홍부, 맹사성, 송우, 윤규, 윤수를 용서하여 경외에서 편의함을 쫓도록 하였다.”

20) 맹희도가 조선시대에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을 제수 받기는 하나 명예직으로 보이며 권근의 기록을 보더라도 맹희도는 적극적인 관직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신증동국』

지 살게 된다. 맹사성의 복직이 35살이던 1394년(태조 3) 8월인 것으로 보아 아산에서 2년간 체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맹사성의 이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맹사성의 정치적 야망이 역사적 역동기를 거치면서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명문 가문의 후예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을 스승으로 삼았던 그는 신흥 세력의 성장과 그들이 주도한 정계 개편으로 인해 무기력한 관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가의 후광을 기대했지만 최영이 이성계에 의해 숙청되고, 스승과 본인이 혁명파에 의해 탄핵되었다. 이후 신왕조 개창과 함께 맹사성과 그의 가문은 파국에 이르렀으니 격동기에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결국 그의 가문은 붕괴하고 젊은 관료였던 그 역시 정치적 실각의 고통을 맛보았던 것이다.

맹사성의 좌절은 얼마동안 지속되었지만 이후 이를 딛고 재기를 모색한다. 결과적으로 1394년에 재출사하였으며 이후의 관직 생활은 태조, 태종 때의 몇 차례 파직을²¹⁾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가 이 시기 재기를 꿈꾸게 된 배경에는 설화나 가승(家乘)을²²⁾ 보듯 아버지의 권유를 거역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맹사성의 효성을 부각하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실제 부친의 권유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신창현 인물조; 『양촌집』 권7 <증맹선생시권사>.

21) 37살이던 1396년(태조 5) 9월에 예조의랑이던 맹사성은 원훈(元勳)인 정희계(鄭熙啓)의 시호를 폄하하여 올린 죄로 파직당하였다. 45살이던 1404년(태종 4) 1월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이던 맹사성은 노비 변경에 오결한 죄를 지어 온수로 유배갔다가 2월에 해배되었으나 경외에서 근신의 명을 받았다. 49살이던 1408년(태종 8)에 대사헌이던 맹사성은 조대림(趙大臨) 사건으로 인하여 한주(韓洲)로 유배갔다.

22) “맹희도 부자는 고려조에 벼슬을 하다가 고려가 망하자 온양으로 물러나 살았다. 태조가 즉위한 후 부자더러 조선을 섬기지 않으면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자 희도는 통곡하며 그 아들을 내보내고서도 홀로 절개를 지켰다.” 서대석, 『조선조문헌실화집요』 2(집문당, 1992), 272쪽; “(맹희도)는 조선왕조가 탄생되고 세상이 평온해지자 아들 古佛은 복직하여 정부에 나가 일하도록 하였다.” 맹운재 같은 글 88쪽 하지만 권근의 기록을 보면 맹희도는 이성계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1396년(태조 5)에 태조가 온수(溫水)에 갔을 때 맹희도가 나와 성덕(聖德)을 찬양하는 당률시(唐律詩)를 짓기도 했다.

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가문 회복의 기회를 삼고자 했던 맹씨 부자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맹사성의 재출사는 그의 정치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도 권근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자로서 경제적 실천에 비중을 두었기²³⁾ 때문이라 생각한다. 비록 후의 일이지만 1400년(정종 2) 11월에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로 있던 맹사성의 상언(上言)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²⁴⁾

이렇듯 왕조교체기는 맹사성에게 좌절과 모색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포부를 거침없이 펴리라는 기대는 전조에서 이미 실제(實勢) 세력과의 거리로 무너지고 그 세력이 신왕조를 건국했으니 재기는커녕 생존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의로운 패배자의 길과 경제적 실천자로서의 길을 사이에 두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 시기 이러한 좌절의 심경과 번민의 모색을 그의 작품인 한시 <연자루(燕子樓)>와 <강호사시(江湖詩)>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연자루>는 사승(師承) 관계인 권근이 남긴 <연자루>와 창작 시기·정서면에서 비교적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강호사시>는 『청구영언』에서의 작품 배열의 의도와 작품의 공간이 실제 강호 체험이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호시가의 보편적 성격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영언』 여말조에 이색, 정몽주, 맹사성을 함께 수록한 것은 동일 시기(변혁기)에 각각 다른 길을 갔던 세 인간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공간이 된 아산은 “水郷은 아니지만 아산만을 따라 들어온 아산호, 삼교호 등이 나무뿌리처럼

23) 김홍규, 같은 글, 144쪽.

24) 『정종실록』 권6 2년 11월 13일(계유). 이날 올린 다섯 가지는 매일 경연을 열 것, 인재를 고루 등용할 것, 왕실과 종친의 위엄을 세울 것, 청렴하고 맑은 자를 측근에 둘 것, 중의 경비를 강화할 것 등이다.

내륙으로 이어진 곳”으로 “맹사성이 살던 맹씨행단에서 강으로 나가서 뱃놀이를 하던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강호사시가>는 “이런 아산의 현장을 바탕으로 한 노래”라 할 수 있다.²⁵⁾ 또한 강호시가의 보편적 성격이 “宦路에서 물러났거나宦路에 들어서지 못한 仕宦志望 선비들의 失意의 노래이면서 그 失意를 벗어나 자신을 修養하고 나아가 현실에 만족을 얻으려 노력하는 갈등의 노래”라는²⁶⁾ 점을 상기할 때, <강호사시가> 역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연자루>를 포함한 <강호사시가>는 건국 직후 맹사성이 아산에서 좌절과 재기를 모색하던 시기에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작품 세계

원래 <연자루>는 당나라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시로부터 기원한다. 백거이는 서주에 사는 장상서의 잔치에 초대받아 그곳에서 장상서의 애기(愛妓) 반반(盼盼)을 만나 즐겁게 놀다 헤어졌다. 이후 소식을 모르다가 12년이 지난 후 장중소를 통해 그녀의 정황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장상서가 죽은 후에도 개가하지 않고 장상서와 함께 했던 누각에서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장중소는 이를 애처로이 여겨 <연자루>를 지었고 백거이 또한 <연자루>를 따라 지었다.²⁷⁾ 이 이야기와 시는 임을 위해 절개를 지킨 한 기생의 절

25) 손지봉·안장리, 「문학속의 牙山 연구」, 『韓國民俗學』 36 집(한국민속학회 2002), 36 쪽

26) 鄭在鎬, 『韓國歌辭文學論』(集文堂, 1982), 256~257 쪽

27) 徐州故張尙書有愛妓 曰盼盼 善歌舞 雅多風態 予爲校書郎時 遊徐泗間 張尙書宴子酒酣出盼盼以佐歡 歡甚 予因贈詩云 醉嬌勝不得 風 翳牡丹花 盡歡而去 爾後絕不相聞 迨茲僅一紀矣 昨日司勳員外郎張仲素續之訪予 因吟新詩 有燕子樓三首 詞甚婉麗 詰其由 爲盼盼作也 續之從事武寧軍累年 頗知盼盼始末 云尙書旣沒 歸葬東洛 而彭城有張氏舊第 第中有小樓名燕子 盼盼念舊愛而不嫁 居是樓十餘年 幽獨塊然 于今尚在 予愛續之新詠 感彭城舊遊 因同其題作三絕句.

의와 애뜻한 마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이 시는 동아시아의 문학 전통이 되면서 누각을 새로 지을 때 누각루명으로 명명되거나 많은 문인들이 차운(次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전남 순천을 비롯한 경남 김해 등지에 연자루라는 누각이 건축되었고, 차운시 또한 줄곧 생산되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김해의 연자루와 권근의 차운시이다. 김해는 수로왕이 세운 가야국으로서 4백여 년을 이어오다가 신라 법흥왕 때에 신라에 복속된 곳이다. 이후 이 곳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역적 강등과 복권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동안 이 지역은 영화로웠던 수로왕 시대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자연 발생했을 것이고 또 유배되었던 이곳에 방축됐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인물들 또한 이런 정서에 동감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권근은 1389년에 우봉으로 귀양갔다가 영해(寧海), 흥해(興海)를 거쳐 1390년 4월에 김해로 이배(移配)된다. 이후 6월 방면되기 전까지 김해에서 <차김해연자루시삼운(次金海燕子樓詩三韻)>을 지었다. 첫째 수는 거문고를 잘 타는 옥섬섬(玉織織)이라는 기생에 대한 시이고, 둘째 수는 귀양 온 자신이 연자루를 바라보며 수로왕 시절의 영광만을 회고한다는 내용이며, 셋째 수는 돌아갈 때에 돌아가지 못하는 제비처럼 자신도 돌아가야 할 곳을 그리워함을 말하고 있다.²⁸⁾

駕洛遺墟幾見春 (가락유허기견춘)

- (一) 滿窓明月滿簾霜 被冷燈殘拂臥牀 燕子樓中霜月夜 秋來只爲一人長
(二) 鈿暈羅衫色似煙 幾回欲著即潛然 自從不舞霓裳曲 疊在空箱十一年
(三) 今春有客洛陽回 曾到尙書墓上來 見說白楊堪作柱 爭教紅粉不成灰. 『白樂天詩集』卷15.

- 28) (一) 駕洛遺墟草樹青 海天空闊眼增明 樓中此日登臨客 去國難堪戀戀情 玉手織織二
八春 舞衫羅襖動香塵 文章埜隱琴中趣 能繼高風有幾人
(二) 海邊逐客方留滯 天畔高樓可上臨 一代風雲成太古 千秋陵墓至今
(三) 燕飛簾幕黃梅雨 鶯囀園林綠樹陰 寂寞壯心驚節序. 『陽村集』卷7 南行錄.

首露文物亦隨塵(수로문물역수진)
可憐鶯子如懷古(가련연자여회고)
來傍高樓喚主人²⁹⁾(내방고루환주인)

가락국 옛터에 봄은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는가
수로왕대의 문물도 티끌처럼 가버렸네
가련한 제비만이 옛날을 못 잊는 듯이
높은 누를 찾아와 주인을 부르네.

맹사성의 <연자루>이다. 맹사성이 김해 연자루를 방문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연자루>를 짓게 된 직접적인 영향은 권근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맹사성의 <연자루> 가운데 시어가 권근의 시어, 즉 ‘駕洛遺墟草樹青’, ‘高樓’, ‘太古’, ‘燕飛’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승(師承) 관계였던 그들이 역사적 격변기에 행보를 같이 했던 것처럼 시 역시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김해로 귀양 간 스승과 아산에 방축된 맹사성, 과거에 영화를 함께 했지만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비통한 심정을 연자루(가야국 김해)가 지닌 역사적 상징을 통해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시간이 지나면 화려한 영광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에 과거의 화려함을 찾아 부른다. 부질없는 외침이건만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제비이기 때문에 가련하기 만하다. 주인없는 제비처럼 이제는 망국의 유신이기 때문에 권근은 ‘객’이 되고 맹사성은 ‘내방 객’이 되었던 것이다. 권근에게 수학하고 그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 야망을 펴고자 했던 맹사성은 스승의 정치적 위기와 패배 이후 동반 몰락하여 이제는 좌절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맹사

29) 맹사성의 한시는 지금까지 1편만 남아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金海 ; 『大東詩選』 卷2. 이 두 문헌에 글자 차이는 거의 없고 전구(轉句)의 ‘鶯’이 『대동시선』에는 ‘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성의 <연자루>는 스승 권근이 유배지에서 <연자루> 3편을 노래한 것처럼 방축된 자신이 스승의 처지와 의식을 공유·수용한 좌절의 노래라 할 수 있다.

맹사성이 좌절을 딛고 정계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근의 문하(門下)였던 점을 들 수 있다.³⁰⁾ 그런데 권근은 처음부터 혁명파의 일원이 아니었고, 개국 시점부터 정계에 진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어떤 경위를 통해 권근이 재출사 하게 되었고, 권근 출사 이후 맹사성이 그를 따라 정계에 재진출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권근은 1390년 4월 김해에서 한 달 동안 유배생활을 한 뒤 5월에 청주옥에 갇히고 6월에 방면되나 7월에는 다시 익주로 이배된다. 다시 그 해 11월에 방면되고, 이듬해 3월 충주 양촌에서 은거한다. 여기서 권근은 왕조 교체를 맞이하게 된다. 정몽주와 이숭인의 죽음, 두문동 사건 등은 반혁명파의 입장에 섰던 권근에게도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이 상태로는 성리학적 이상 국가 건설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은 각종 유교 경전에 대한 천견록(淺見錄) 저술과 신왕조를 위한 악장 제작으로 나타난다. 그는 1392년 7월 이후부터 1393년 2월 사이에 한시 악장인 <풍요(風謠)>를 지어 올린다. 병서(并序)에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는 오직 진언에 있으므로 삼가 풍요 한 편을 올리니, 한갓 아침만은 아니고 감히 잠경의 뜻을 부치어 신 등의 애달픈 충정을 만의 하나나마 펴볼까 한 것입니다.”³¹⁾고 하여 이 시기를 전후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후 1394년(태조 3) 9월에 권근은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로 정계

30) 김홍규, 같은 글 142~143 쪽; 이종주, 같은 글 10 쪽

31) “愛君之道 惟在進言 謹獻風謠一篇 非徒諛諛 敢高嚴警之意 庶可小仲臣等拳拳忠懇之萬一.” 『陽村集』 卷1 進風謠并序.

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번에는, 시운(時運)이 비색함을 알아 몸을 수습하고 물러갔으며, 부귀를 하찮게 여기고, 헌면(軒冕)을 초개(草芥)처럼 여기어, 그 고매한 기풍과 따를 수 없는 행적이 진실로 아득하게 더위잡을 길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밝은 임금이 위에 계시고 어진 이들이 조정에 가득하며, 모든 관사(官司)가 모두 합당한 사람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도 재덕(材德)을 겸비한 선비와 노성한 인사들이 현달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여, 혹은 산골에 숨어살고 혹은 판축(版築)에 숨었을까 걱정하여 빠짐없이 망라(網羅)해서 돈후(敦厚)한 분부를 내려 나오게 하니, 어진 이를 갈망하는 뜻이 매우 간절한 것이다. 사군자(士君子)가 나와서 일을 해봄직한 때이다 ... 나는 장차, 선생과 같이 은둔한 선비들이 생광 있게 나와서 문화(文華)를 진작(振作)하고 태평세월을 빛나게 하여 훌륭한 정사를 노래하는 것이 반드시 오늘로부터 시작될 것을 보게 되리니, 선생께서는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³²⁾

권근이 맹희도에게 정계에 다시 나올 것을 촉구하던 글이다. 권근은 복귀 이후 정치적인 안정과 세력권 확대를 위해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인물들에게 독려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맹씨 부자도 해당되었던 것이다. 제자였던 맹사성의 정계 진출은 권근에게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스승의 이와 같은 정치적 행보는 맹사성에게는 나름의 명분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 말 출사 이후 줄곧 권근의 궤적을 밟아갔던 맹사성에게는 권근의 신앙조를 위한 악장 제작, 출사 의지 그리고 정계복귀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맹사성도 스승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었을 것이고 그 발자취에 놓인 것이 <강호사시가>라 할 수 있다.

32) “向者知時之否 斂身而退 錙銖鍾鼎 芥踐軒冕 高風遐躡 固邈乎其不可攀矣 今則明君在上 群賢滿朝 百司庶府皆得其人 而猶恐有懷材抱德之士 垂黃戴白之老 不求聞達 或伏於壘穴 或隱於版築 網羅無遺 敦遣而來 渴賢之意既甚切矣 此士君子可以出而有爲之秋也 ... 吾將觀肥遯之士如先生者 賁然而來 振其文華 以飾太平而鳴盛治者 必自今日始矣 先生宜勉馬.” 『陽村集』 卷17 贈孟先生詩卷序.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 溪邊에 錦鱗魚 | 안주로다
이 몸이 閒暇히움도 亦君恩이샀다.

江湖에 너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업다.
有信 江波 는 보내 々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이샀다.

江湖에 ㄱ을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小艇에 그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消日히움도 亦君恩이샀다.

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뺏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亦君恩이샀다.³³⁾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반복과 나열의 병렬적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각 연의 초장과 중장은 대등하게 전개되고 종장은 이를 집약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구조의 노래는 한 연의 주제가 전체 주제와 맥을 같이 하기에, 연을 교체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도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³⁴⁾ 하지만 <강호사시가>는 각 연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시(四時)의 흐름이 노래의 배경이 되고 있어 계기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연 모두 ‘江湖에 (계절) 드니 (주관적 정서 내지 경물 묘사) - (구체적 삶이나 행위) - 이 몸이 (초중장의 집약) 亦君恩이샀다’의 통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래가 주는 일정한 흐름과 엄격한 틀은 경직

33) 『靑丘永言』(朝鮮珍書刊行會, 1948), 3~4쪽.

34) 예를 들어 고려속요 <쌍화집(雙花店)>의 경우가 그러하다

성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 노래의 공간은 네 계절의 시간들로 이루어졌다. 화자가 처한 강호는 한 곳이지만 작품이 보여주는 공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곳의 강호인 것이다. 이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각 시간들을 모자이크한 공간미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공간미의 극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미감(美感)은 단거나 갇힌 공간 인식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작품의 정서는 대체로 정적(靜的)이다. <강호사시가> 역시 사시(시간)를 하나로 엮어 만든 강호(공간)의 노래-공간미의 극대화-이기에 다소 폐쇄적 공간 안에서 정적 이미지를 수반하고 있다. 이처럼 경직되고 정적인 가운데 화자의 사시는 순환된다.

봄이 되니 화자는 흥을 일으킨다. 여느 강호시가의 화자들처럼 <강호사시가>의 겨우내 움츠렸던 화자도 봄을 통해 기운을 얻고 있다. 죽음의 시간이 가고 부활과 소생의 시간이 되었으니 만물이 생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얼음장 밑에서 잠자던 금린어는 강물이 풀려 자유롭게 헤엄치니 싱싱한 안주감으로도 손색이 없다.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고 있는 강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화자는 재생하는 봄을 느끼며 탁주로서 흥취를 제고하고 재기를 다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하다. 바빠야 할 봄에 그의 몸은 한가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가로움은 일 없음에서 오는 것이기에 여유 그 자체일수도 혹은 무력함의 포장된 언어이기도 하다. 할 일을 다하고 난 뒤의 한가로움은 여유가 되겠지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한가한(?) 것은 냉혹한 현실 패배자로서의 이형태(異形態)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되어도 화자는 여전히 할 일이 없다. 보잘것없는 초당에 기거하는 화자에게 일 없음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름이 되었기에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화자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기댈 곳 없는 화자에게 그의 편이 되어 준 것은 강바람뿐이다. 미더운 강만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듯 답

답한 자신의 마음을 바람이 안정케(서늘케) 한다. 봄에 화자는 강가라도 거닐고 술도 마셨건만 여름의 화자는 강바람만 쏘일 뿐 봄의 흥취를 잊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름에도 화자는 여전히 무료하고 무기력하기만 하다.

가을이 찾아 왔다. 가을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듯 화자가 사는 강호도 풍성하기만 하다. 화자는 물고기가 살찌 있는 강물에 배를 띄운다. 하지만 화자는 살찐 고기에 지금은 욕심이 없다. 그가 사는 초당(草堂)만큼의 소정(小艇)이니 실은 그물도 적고, 그 그물을 흐르는 대로(홀리 띄여) 던져 둘뿐이다(더더 두고). 한껏 살오른 물고기를 저 만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 강상(姜尙)이 위수(渭水)에서 때를 기다리며 낚시한 것처럼 화자도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 화자는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 강호에서 세월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어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消日) 있는 강상처럼.

눈이 많이 내렸다. 가진 자는 쌓인 눈을 풍성하게 보겠지만 누역으로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에게는 겨울과 눈은 고통 그 자체인 것이다. 화자는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별판에 샷갓과 누역만으로 버티고 있다. 또한 많은 눈은 세상을 막히게 한다. 이런 방축자의 냉혹한 현실을 화자는 애써 춥지 않다고 말한다. <사미인곡>의 화자는 겨울 추위를 양춘(陽春)으로 이겨보지만 <강호사시가>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가 가진 의식주 전부는 작은 집, 작은 배, 탁주 그리고 샷갓과 누역뿐이기 때문이다. 봄에 느꼈던 작은 흥취마저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줄어들고 겨울에는 아주 사라져 버렸다. 내년 봄 강물이 풀리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다시 겨울이 되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력함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화자의 탈출구를, 스승 권근이 찾아 간 '명군재상(明君在上)하고 군현만조(群賢滿朝)'인 곳에서

찾았다. 그래서 맹사성은 매 연마다 군은(君恩)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충군(忠君)의 노래이며, 정치 현장에서 임금의 은혜를 갚고 귀거래 하겠다는 것은 자연회귀의 노래라는 점을 수용할 때,³⁵⁾ <강호사시가>는 전자에 해당한다. 몸은 자연에 있지만 마음은 그 곳에 있지 않고 정계에 대한 미련과 재출사를 위한 ‘역군은(亦君恩)’의 노래인 것이다. 군은(君恩)을 강조[亦]함으로써 겉으로는 자연과 정치의 양가 긍정 의식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군은류 강호시가의 전통은 다음 노래들을 통해 변용 수용되었다.

功名이 괴 무엇고 헌신씩 버스니로다
田園에 도라오니 麋鹿이 벗이로다
百年을 이리 지냄도 亦君恩이로다.³⁶⁾

이 작품은 신흘(申欽, 1566 ~ 1628)이 1613년(광해군 5) 계축화옥으로 인하여 춘천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맹사성처럼 이 중적이고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공명은 헌신 짝도 아니고 미록은 벗이 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늘 군은을 좇을 뿐이다. 선배 정철(鄭澈, 1536 ~ 1593)도 자연을 매우 사랑했지만 관동 팔백리 방면에 성은(聖恩)을 외치지 않았던가. 이보다 먼저 신흘은 앞으로 올 성은을 위해 군은을 미리 노래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1623년 인조 즉위와 함께 예문관·홍문관대제학에 중용되었고, 같은 해 우의정이 되었다.³⁷⁾

35) 김성언, 『문학과 정치』(동아대학교 출판부, 2004), 138 ~139 쪽

36) 『청구영언』, 30쪽

37) 군은을 노래했던 조존성(趙存性, 1554 ~1628)도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草堂 煙月の 시름업시 누워 이서
村酒 江魚로 長日醉를 願호노라
이 몸이 이러구름도 亦君憐이샀다.³⁸⁾

신계영(辛啓榮, 1577 ~ 1669)의 <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 끝 부분이다. 이 노래는 신계영이 1655년(효종 6년)에 ‘환해풍랑(宦海風浪)’으로 인해 낙향하여 지은 것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가의 흥취를 자족적인 삶을 말하고 있으나 겨울에는 전원 삶에 대한 부정과 정치현실을 동경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이곳에서 취락하되 이 곳을 궁극적으로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저 곳을 다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신계영은 1656년(효종 7)에 가의(嘉儀), 1665년(현종 6)에 지충추등을 제수받았다.³⁹⁾ 윤이후(尹爾厚, 1636 ~ 1699)의 <일민가(逸民歌)>도 환정(宦情)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와 전가지락(田家之樂)과 강호지승(江湖之勝)을 노래한다고 했지만 그 역시 마지막에 ‘두어라 江湖의 逸民이 되야 祝聖壽 | 나 흐리라’고 토로하였다.⁴⁰⁾

이와 같이 역군은류 강호시가들의 ‘역군은’은 방어적 자기만족이자 회구적 추체험의 환희라 할 수 있다. ‘역군은’의 화자들은 정계를 체험했던 전직 관료들이기에 강호의 삶을 자족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개인을 위한 은일이 가문과 국가를 위한 치인으로서의 삶보다 가치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강호는 당의정처럼 쓴

아히야 粥早飯 다오 南畝에 일 만해라 / 서투론 싸부를 늘 마조 자부려도 / 두어라 聖世 躬耕도 亦君憐이시니라. 『진본 청구영언』, 29쪽

38) 『仙石遺稿』.

39) 이상의 신계영과 <월선헌십육경가>에 관한 것은 김명준, 「<월선헌십육경가>에 나타난 의식 지향」, 『한국문학논총』 제29집(한국문학회, 2001) 참조.

40) 『支庵日記』; 구수영, 「윤이후 ‘일민가’ 연구」, 『동악어문논집』 제7집(동국대학교, 1971).

맛을 달콤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남는 맛을 고통일 뿐이다. 이 때 터지는 ‘역군은’이야말로 진솔한 기도인 것이다. 맹사성 이후의 작품이 이러하다면 <강호사시가>의 ‘역군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역시 현재의 무기력한 삶을 한가함으로 포장하면서 역군의 회원(希願)을 노래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강호사시가>는 무기력한 일상만이 되풀이되는 강호 공간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맹사성의 모색과 의지를 그려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현실 표상임과 동시에 추체험의 관념상이기도 하다. 방축된 자신이 실제 강호 체험을 통한 좌절을 반어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다가올 군운을 앞서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스승 권근과 함께 성리학적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이루어 보겠다는 치인적 삶에 대한 희구가 있었기에 무력과 고통의 현실조차도 달콤한 한가함으로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재출사를 위한 이력서에 기재된 ‘역군은’은 앞으로 올 어떤 환로의 고통마저도 감내할 수 있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Ⅲ. 결론

앞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연구사는 <강호사시가>를 맹사성의 노년 작으로 단정하여 작품이 지향하는 의식을 실제 체험의 결과이든 추체험의 관념이든 간에 조화롭고 넉넉한 세계관의 소산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강호사시가>를 노년 작으로 볼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오히려 맹사성이 젊은 시절 좌절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점에 따라 투영된 세계상 또한 달리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논의의 출발로 삼았다.

<강호사시가>를 이룬 시기에 수록한 『청구영언』에 이색, 정몽주 등의 작품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 점은 전환기에 처한 세 인간형을 작품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맹사성의 생애 가운데 실제적 강호 체험의 시기 즉, 아산 은거기가 여말선초였으며, 이 시기는 스승 권근의 유배기와 맹사성의 방축기와 일치하기도 하다. 이 때 권근이 <연자루> 3편과 <풍요> 약장을 지어 좌절의 고통과 재기의 의욕을 표출한 것처럼 맹사성도 스승을 따라 또 다른 <연자루>와 <강호사시가>를 창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강호사시가>의 창작 시기는 조선 건국(1392) 이후에서 재출사(1394)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강호사시가>를 맹사성이 방축기에 창작한 것으로 볼 때, 작품의 세계 인식은 낙관주의와 낙차를 두게 된다. 환로(宦路)에서 이탈한 고독한 맹사성에게 강호에서의 사계절은 고통의 나날인 것이다. 하지만 스승이 관직 복귀 소식을 강호에서 들었기에 그에게 강호는 재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재기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강호, 이것을 맹사성은 ‘일없음’과 ‘역군은(亦君恩)’의 이중적 언어 미학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강호사시가>의 세계는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상과 회구하는 추체험의 관념상이 조화롭게 만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맹사성의 고려시대 활동을 정치적인 면에서 살핀 점, 권근과의 교유관계를 긴밀하게 고찰한 점, <연자루>의 창작 시기를 권근의 작품과 견주어 여말선초로 본 점, 역군은류 시가들을 정치적 소망으로 읽은 점 등은 본고가 맹사성과 그의 <강호사시가>를 좀더 이해하려 했던 흔적들이었다.

이상의 논의가 일정 수준에서 이해된다면 강호·어부가류 시가들 틈에서 <강호사시가>의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어부단가(漁父短歌)>와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와의 거리를 두었던 <강호사시가>가 좀더 다가갈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면앙정가(俛仰亭歌)>와는 그 만큼의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KCS I

참고 문헌

權鼈 編, 『海東雜錄』

權近, 『陽村集』

『高麗史』

金壽長, 『六堂本 海東歌謠』

金天澤, 『珍本 靑丘永言』

『大東詩選』

『仙石遺稿』

『新增東國輿地勝覽』

李穡, 『牧隱先生詩稿』

『朝鮮王朝實錄』

『支庵日記』

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국역·원전 고려사』, CD-ROM, 서울:(주)서울시
스텐, 1998.

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서울:(주)서울시
스텐, 1997.

具壽榮, 「尹爾厚의 ‘逸民歌’ 研究」, 『東岳語文論集』 第七集(東岳語文學會, 1971),
209~239 쪽

김명준, 「<월선헌심육경가>에 나타난 지향 의식」, 『한국문학논총』 제29집(한국
문학회, 2001), 27~45쪽.

김성언, 『문학과 정치』,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4.

金興圭, 『육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맹은재, 「古佛 孟思誠 研究」, 『國樂院論文集』 第1輯(國立國樂院, 1999), 85~99
쪽.

손지봉·안장리, 「문학속의 牙山 연구」, 『韓國民俗學』 36집(한국민속학회, 2002),
147~180 쪽

서대석, 『조선조 문헌설화집요』 2, 집문당, 1992.

李鍾周, 「孟思誠論」, 『續 古時調作家論』, 韓國時調學會 編(白山出版社, 1990),

9~21쪽.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천』, 소명출판, 2002.

鄭在鎬, 『韓國歌辭文學論』, 集文堂, 1982.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 태학사, 1999.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투고일 : 2004.12.31. 심사일 : 2005.1.20. 심사완료일 : 2005.2.2>

K C I

Abstract

The Creation Period and World Vision of <Ganghosasiga(江湖四時歌)>

Kim, Myung-Joon

Until now in the history of researches, <Ganghosasiga(江湖四時歌)> was conclusively considered as a work of Maeng Sa Sung in his later years; therefore the awareness this work intends to implicate was viewed as the product of a harmonized and leisurely world view, whether it is the result of actual experiences or notion from Nacherleben.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evidence to prove that <Ganghosasiga> is a work of Maeng Sa Sung's later years, and as a matter of fact, there is a stronger possibility of <Ganghosasiga> being written in Maeng Sa Sung's youthful days when he was suffering from frustration. Moreover, different point of views can give lead to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the world reflected in this work; therefore, this became the initiative of my argument.

The fact that <Ganghosasiga> was published with works of Lee Saek and Jung Mong Joo in [Chunggooyoungwon] which included <Ganghosasiga> early, implies that [Chunggooyoungwon] projects three human types in a time of turning point through literary works. In addition, the period of

actual experience of Gangho for Maeng Sa Sung during his life, that is, his retirement period in Asan, was the end of Koryo and beginning of Chosun Dynasty. In this period, the exile of his master Kwon Keun and banishment of himself also occurred. Just as Kwon Keun expressed his pain of frustration and volition of returning by writing the chapters of <Yeonjaroo> and <Poongyo>, Maeng Sa Sung has created another <Yeonjaroo> and <Ganghosasiga>, following his master. Therefore, the period <Ganghosasiga> was written can be estimated to be between the foundation of Chosun(1392) and his return to the government service(1394).

As above, when we consider the period when <Ganghosasiga> was written in his banishment days, the world view of the work leaves a distance from optimism. To Maeng Sa Sung who seceded from the royal road of government service, the four seasons in Gangho would have been so painful. However, for he had heard the news of his master's return to the government in Gangho, Gangho can be regarded as the stage for his comeback. Maeng Sa Sung described Gangho, which enabled the hope of return despite the failures and ordeals, with aesthetics of duplex linguistics by 'nothing to do,'and 'grace of the great lord.' Conclusively, the world of <Ganghosasiga> would be a world where the actuality, which shows the reality of pain, and ideology which desires Nacherleben, meet in harmony.

Key words : Maeng Sa Sung, Kwon Keun, Ganghosiga, Ganghosijo,

<Ganghosasisa>, <Yeonjaroo>, creation period, world view

KCS I